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0~15년) 및 국내외 분석자료

김 옥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kimok@kdi.re.kr

1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에 이어 올해 3번째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대남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자세히 언급했다. 경제부문은 과학기술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대외경제 발전을 언급한 점이 예년과 다른 점이며 이외 경제부문별 과업은 예년과 대동소이하다.

본 자료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신년공동사설·신년사의 구호, 전년도 경제부문 성과, 올해 경제부문 목표, 경제건설부문의 주요과업을 정리했다. 또한 신년사에 나타난 정책적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공개된 주요 분석자료와 언론보도도 정리하여 제공한다.

1. 신년사(2010~15년) 경제부문 비교

1. 구호

연도	구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를 정복한 정신과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훈련도 전투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인민을 돕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 전년도 경제성과

연도	전년도 경제성과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영도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음 건설부문에서는 조선속도 창조를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책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욱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 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 부강조국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 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 대화 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고 자립적 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특히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 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연도	전년도 경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노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 ▪ 세포등판 건설을 비롯한 대건설 전투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 들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음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이 갖추어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에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와 련이어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건인불발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개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짐 ▪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양양된 애국적 열의에 떠받들려 평양시에 창천거리와 룡리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전국도처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러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정신적 영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 축전을 기념할 기념비적 건축물들 건설 - 경공업공장 개건 완비,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들 마련 ▪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룡림과 대흥, 회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선경마을 건설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변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 ▪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과시 ▪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울수 있는 토대가 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짐 -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 ▪ 지난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 - 태양철과 5.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하고 전반적인 공업부문 활성화 -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가 창조 - 냉원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미수밭물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건설 - 남흥가스화대상공사가 완공되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추진 -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 달성 및 협동농장들이 강성대국 리상촌으로 변화 -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훨씬 강화

3. 경제목표

연도	경제목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 부문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함 ▪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해야 함 ▪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함 ▪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함 ▪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함 ▪ 경제사업의 핵심 추진목표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 - 둘째,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입장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 것, 이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임

4.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연도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의 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 강조 ▪ 농업·축산·수산 3대 축으로 먹는 문제 해결 ▪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 등)사업 등 대외경제 다각적 발전 시도 ▪ 경공업 생산 정상화로 소비품 공급 보장 ▪ 석탄공업 부문과 화력발전소 혁신 등을 통하여 전력문제 해결 ▪ 산림복구 및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 공장·기업소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 우리의 경제관리방법 확립 및 기업체의 주동성·창발성, 당적 지원 강조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주타격 방향, 건설의 변영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호 강조 ▪ 금속,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의 쌍기둥 ▪ 전력 및 석탄 증산·철도운수 개선 ▪ 경공업 CNC화, 국산화, 지방공업 발전 ▪ 고깃배·어구 현대화, 바닷가 양식 ▪ 지하·산림·해양자원 보호, 나무심기 ▪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 강화 ▪ 경제사업 지도·관리 관련,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체의 책임성·창발성 강조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적 양양을 위한 총돌격전·사회주의 증산경쟁 강조 ▪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알곡생산목표 달성, 원자재 보장) ▪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함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 ▪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 4대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100년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 ▪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임 ▪ 4대 선행부문 및 화학공업기지의 생산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부문, 전력공업부문, 금속공업부문, 철도부문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되어야 함 -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함 ▪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서야 함 ▪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함 ▪ 경제관리를 개선해야 함 ▪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넘김없이 발휘 해나갈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함

5. 경제부문별 과제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들 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 세우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여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함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 물 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전국 도처에 마련해 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 화학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 및 전력공업)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전력 수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나가야 함 -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부문을 기간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함 ▪ 대외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함 ▪ 건설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 시설과 살림집들을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 세워야 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 부문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 -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이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함 -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함 ▪ 건설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척지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쳐 제 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함 - 살림집 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함 ▪ 전력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집 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함 ▪ 화학공업부문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함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함 ▪ 수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 관철하여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 전투를 힘있게 벌여 포구마 다에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닷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금속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함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경공업은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며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리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 4대선행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밭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 주체철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 ▪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부문)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화학공업부문)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닐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여야 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식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 기술장비 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함 -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 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함 -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 1차소비품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 소비품생산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함 -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여나가야 함 -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함 -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함. -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높여야 함 - 상품공급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선행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고 새 탄밭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전력공업) 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함. - (금속공업)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철도)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어야 함 - (화학)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 주어야 함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공업뿐 아니라 전반적 공업부문에서, 중앙공업뿐 아니라 지방공업에서도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함 -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함 -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함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공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여야 함 -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전력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회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석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하여야 함 ▪ 기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높은 첨단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함 - 평양시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도시와 농촌들에 21세기의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상품류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함

II. 신년사 분석 소개

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전망¹⁾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 2015년 신년사의 주요 특징은 대내외 정세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구심을 반영한 것과 대남관계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점
 - 경제정책 제시에 앞서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의 3가지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서술한 점으로 보아 대내외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남 및 대외 부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 할애했음
 - 이처럼 남북관계를 장황히 언급한 이유는 첫째,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탐색하겠다는 것. 둘째,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셋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공동행사 개최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 압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5년에는 격한 동원성 구호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정상화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식의 정책을 내세워 물가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
- 경제분야 과업은 예년과 대동소이하며 경제정책 노선에서 큰 변화가 없음
-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은 내부의 각종 자원 분배에서 여전히 국방부문이 최우선시 될 것임을 예고함
-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이 비교적 온건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노동당 창건 70돌을 기념하기 위해 중도에 경제정책을 급진적 동원정책으로 바꿀 가능성도 존재

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전망」, 2015. 1. 1.

2. 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²⁾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북한 신년공동 사설과 신년사를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2012년에는 군중시를 의미하는 ‘선군(先軍)’이, 2013년과 2014년에는 ‘강성국가(또는 강성대국)’가, 그리고 2015년에는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북남’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됨
-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올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전망과 예상 의제
 - 김정은 제1비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밝힌 것도 남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작업 구체화, 대북 개발협력, 나진-하산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문제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정성장, 「2015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세종논평』, 2015. 1. 5.

III. 북한 신년사 관련 국내외 보도

1. 국내보도

〈북한 신년사, 희망 가질 객관적 근거 없다〉

북한 신년사는 상투적인 내용과 어법이 거의 전부를 차지만 그럼에도 신년사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최고지도자’의 이름으로 올해 북한정권이 나아갈 방향을 천명하는 것인 만큼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실제로 2015년 북한의 신년사에는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이 꽤 있고, 한국 언론들이 이 점을 비중 있게 다룰 것임은 명백함. 필자는 김정은 정권의 개과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객관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신년사에 언급된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 역시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Daily NK, 1.1

〈신년사 20%가 남북관계 ... 자신감 넘친 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모습은 2013년 처음 카메라 앞에서 신년사를 할 때의 불안한 모습과는 판판. 이번 신년사는 과거 신년사에 비해 대남 메시지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18번 사용했고, 분량도 전체 1만504자 중 2007자로 5분의 1을 남북문제에 할애함.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다소 변화가 있음.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신년사 맨 앞에 경제정책을 밝혔지만 올해는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앞세워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자”고 강조함. 경제분야에선 농·축·수산을 3대 축으로 삼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주요 대남 요구사항이 될 것임을 시사함. 중앙일보, 1.2

〈美-中전문가가 본 김정은 신년사〉

1일 대외관계 발전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대해 미중 전문가들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와 “아직 북한의 변화 시그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함. 미국의 북한 전문가 대니얼 핑크스틴 국제위기기구(ICG) 동북아부국장은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함. 최근 미국 행정부 및 유엔 관계자들을 연쇄 접촉한 핑크스틴 국장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감성적 책무(emotional commitment)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올 한 해 남북 관계보다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중국의 외교전문가 스인홍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에 대해 “김정은은 걱정하고 중국을 따돌리려는 것 같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 역시 멀고도 험하다...”고 평가함. 이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 대화를 언급한 것은 결국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미국, 한국과도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함. 그러나 스 교수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이뤄지는 즉시 남북 관계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의 유화적 수사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함. 단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경제개발 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함. 동아일보, 1.2

〈북한 “남북관계 개선 협의 준비...고위급접촉도 가능”〉

북한은 20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문제를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고위급접촉 재개 가능성을 내비침.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은 이날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를 열고 “공화국(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연합뉴스, 1.20

〈북한 '신년사 관철' 호소문, 청와대·국회 등에 발송〉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21일 판문점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음.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금일 오후 4시경 판문점 채널을 통해 어제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연합회의 명의 서한으로 청와대·국회의장·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 앞으로 보내왔다"며 "정부는 동 서한을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한은 전날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우리측에 '무모한 체제통일론' 포기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함. 아시아투데이, 1.21

2. 해외보도

〈김정은 신년사,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했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함. 김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김 제1위원장은 앞서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대결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촉구했음.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됨.

경제 분야에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업이 강조됨. 앞서 김 제1위원장은 2013년에는 경제 분야에서 농업과 경공업을 주력 분야로 제시했고, 지난해에는 농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시했음. 김 제1위원장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힘,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음. 반면, 경제관리 분야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강조됐을 뿐, 새로운 정책방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른바 '백두의 혁명정신'도 강조되어 지난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백두'란 표현을 올해는 무려 11 차례 사용함. Voice of America, 1.1

〈한국 내 탈북자들이 본 북한 신년사 “북한 기대하면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한국에서 연일 화제. 남북간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제 부문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신년사를 하는 김정은의 눈길과 동작이 지난해보다 더 어색해 보였다”, “김일성은 연설할 때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은은 마치 토론준비 없이 연단에 나선 학생을 보는 것 같았다”, “새해 신년사 원문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외워야 할 지 걱정부터 앞선다” 등 반응을 보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신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 이모 씨는 또 다시 북한 집권층이 주민들에게 고통의 동참을 호소했다고 지적함. 이 씨는 또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조건부적으로 말했으므로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나 언론이 앞서 가서는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탈북자 북송 반대운동을 하는 또 다른 탈북자 김모 씨는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함. 김 씨는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모방해서 할아버지처럼 폭넓은 정치를 열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말함. 결국 북한 주민들을 유일사상체계에 묶어 두고서는 북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어렵다고 지적한 김 씨는 북한의 집권층이 아닌 주민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Voice of America, 1,2

〈북한, 자주적 외교 시작하지만 상황개선 여전히 어려워〉

외신보도에 의하면 올해 북한은 외교 부문에서 다소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심지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힘. 미국 『워싱턴포스트』 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북한전문가 존 델루리 교수는 “김정은이 2015년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과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인납치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위해 북한과 대화 하겠다고 밝힘. 분석전문가에 따르면,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김정은의 북한 내부 사정과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

영국 『Daily Telegraph』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힘. 해당 보도에서는 북한이 항상 적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여타 국가의 정상들은 북한과의 접촉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은 상황. 보도에서는 북한이 2013년 2월부터 제 3차 핵실험 계기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국제적 압박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후 몇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UN제재의 해제를 요구함.

싱가포르 『연합조간(聯合早報)』에 따르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에 올리브가지(평화)를 내민 것은 한국과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이로부터 김정은은 국내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어 올해부터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됨. 그러나 외교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올해 북한과 한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회담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으며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양측의 여론에 영향력이 매우 클 것. 参考消息网(신화통신사 주관 포털사이트), 1.16

〈북, 미국과 한국에 외교 공세〉

18~19일 북한의 6차회담 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와 만날 예정. 북한은 연초 한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직접 대화해 과거와 다른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음. 김정은은 신년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남북관계를 언급했고, 북남 사이에는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언급함.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임. 북남 양측에는 전제조건에 있어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화가능성이 보인다는 데에서 희망이 있어 보임. 북남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관계 개선의 핵심은 미국임. 최근 미국 소니사 해킹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발표한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과의 대화가능성도 시사함. 미국은 이에 대해 군사훈련과 핵실험은 별개의 문제라며 거절함.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며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은 북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음. 新华网(신화망), 1.15

〈남북관계 진전을 언급한 김정은 신년사,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후 남북관계는 2015년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북한의 신년사에 앞서 남북 대화를 제의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김정은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 한국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후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난했지만 신년사에서는 정상회담을 가능성을 언급함. 2015년의 출발은 희망적이지만 남은 한 해는 말이 아닌 행동이 결정할 것임.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1.1

〈신년사를 통해 예측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북한 지도자〉

소니해킹 사건으로 미국은 북한에 명시되지 않은 보복을 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은 또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화해를 언급하고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촉구함.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이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 궁극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최근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역할인데, 중국의 지원 없이 북한은 붕괴할 것이며,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임. 북한의 행동은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중국은 용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의문. 중국이 북한을 다그친다면 김정은은 매우 다르게 행동할 것임. The Independent, 1.1

〈北 김정은 신년사, 가정의 행복 강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을 받은 동시 ‘가정의 행복’을 강조한 것이 흥미로움. 신년사 서두에서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호소, 연설의 마지막을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라는 말로 끝맺어 과거 “싸워나가지” 등 굳은 말로 끝날 때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임. 김 제1위원장은 올해의 활동을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부터 시작했는데 신년사와 이러한 활동을 보면 ‘아이’와 ‘가정’에 중점을 두어 ‘인민의 행복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는 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핵무기를 개발하고 선군 노선만을 계속해서 ‘가정의 행복’은 오지 않으며 김 제1위원장이 ‘선군’에서 민생과 민족, 민주를 우선시하는 ‘선민’으로 전환하기를 바램. 교도통신, 1.15